

동해안 지진해일 초동대응 만전

속초해경 경비함정 · 선박 대피훈련 ... 일본 서해안 지진 발생시 100여분만에 도착

최근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 사태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의 지진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속초해경이 지진에 대비한 선박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속초해경은 일본 서해안에서 진도 7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 동해안에 100여분이면 도착하고, 강도가 강력해 질수록 도달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지진해일이 동해안을 덮칠 경우 막대한 피해와 대피 시간이 길지 않는 것으로 기상하고, 경비함정 및 선박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내용은 동해안 지진해일 발생시 지진해일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경비함정을 긴급 출항시켜, 안전해역(연안 3~5마일)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 각 파출소와 출장소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

지 안내와 대형선박을 외해로 유도하는 등 정박어선 안전조치 점검을 실시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동해안의 지리적 특성에 부합되는 재난 대비훈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대청소·숨은자원 모으기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죽왕면 야촌리서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는 지난 21일 죽왕면 야촌리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대청소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회장 이진명)는 지난 21일 오전 8시 죽왕면 야촌리에서 새마을회원 및 마을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대청소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눈과 밭에 버려진 폐비닐 및 농약병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폐자원을 수집해 자원재활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근검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새마을 대청소를 통해 폐비닐, 농약병, 각종 숨은 자원 모으기를 통해 약 5톤의 재활용 자원이 수거 됐다.

박승근 기자

“아름다운 고성바다 후손에 물려주자”

바다살리기 고성지부 거진항포구 정화활동 실시

‘천혜의 자연을 지키고 바다를 보호한다.’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고성지부(지부장 김두복)는 지난 19일 오전 거진항 일대에서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바다환경 오염방제의 일환으로 거진항포구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에서는 육상은 물론 배를 이용해 항포구 주변에 있는 각종 침전물 및 부유물 등을 제거했다.

김두복 고성지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연을 지키고 바다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며 “앞으로 아름다운 고성의 바다를 훼손하지 않도록 회원들과 혼연



바다살리기 고성지부가 지난 19일 거진항포구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살리기 고성군지부는 정화활동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매달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근 기자

22사단 에너지 절약 실천 앞장

가로등 타이머 · 절전형 멀티탭 설치... 카풀 우수자 주유권 선물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가적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가운데, 육군 제 22보병사단이 유례없는 흑한으로 전력난이 발생한 지난해 연말부터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운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22사단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절약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무실 조명 및 모니터 끄기, 출·퇴근버스 이용하기, 승용차

5부제와 카풀제도 적극 시행, 자전거 출퇴근 운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병영내 가로등에 타이머를 설치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사무실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곳에 절전형 멀티탭 2,712개를 설치, 점심시간과 퇴근시 대기전력을 100% 차단하고 있다.

22사단은 대기전력 차단, 전기절약 등을 통해 2월 4주차 및 3월 1주차 동안에만 200여만원을 절약했다.

이외에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다. 3월부터는 복사용지 사용량 30% 줄이기, 사무실 소수인원 근무 시 개인 스탠드 사용 운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카풀제의 지속적인 활



육군 제 22보병사단 간부들이 출근시간 카풀제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성화를 위해 카풀 우수자에게 주유권을 선물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통해 에너

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